

무역적자, 25년 만에 13개월째 이어가...반도체 수출 34.5% ↓

수출, 551억불 6개월 연속 ↓...무역수지 46억불 적자 반도체·디스플레이 ‘급감’...對중국 수출 33.4% 감소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이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보이며 무역수지 적자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수출 버팀목이던 반도체 수출이 34.5% 줄었고, 중국과의 수출도 33.4% 감소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3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6% 감소한 551억2000 달러(72조 2072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악화가 이어진 영향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이차전지 등 자동차 관련 품목은 수출 증가를 보였다. 자동차 수출은 64.2%, 이차전지의 경우 1.0% 늘

아졌다. 자동차는 9개월, 이차전지는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경우 65억2000 달러(8조 5412억원)를 기록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따른 대기 수요, 친환경차·스포츠퉀리차량(SUV) 등 고부가 신차 모델 출시로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차전지도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 사업 가속화 등으로 수출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34.5% 급감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내 수출 비중이 큰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라 반도체 수출은 45억 달러(5

조8950억원) 줄었다.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디스플레이도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달 디스플레이 전년과 비교해 41.6% 수출 감소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한 가운데 대(對)미국·중동 수출은 증가했으나,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중국·아세안은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며 미국은 1.6%, 중동은 21.6% 수출이 뛰었다.

특히 미국은 지난달 97억9000 달러(12조 8249억원) 수출을 기록했다. 2월 증가로 돌아선 이후,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 감소는 지속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긴축정책에 경기 침체와 반도체 수출 감소로 대(對)중국 수출은 33.4%, 아세안 21.0% 줄었다. 중국과의 수출에선 반도체(49.5%), 무선통신(43.2%), 석유화학(37.9%) 등 대부분의 품목이 쪼그라들었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4% 감소한 597억5000만 달러(78조2725억원)를 기록했다. 원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 수입이 11.1% 떨어지며 145억 달러(18조9950억원)를 기록한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에너지 수입 규모 자체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48억 달러나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6억 달러(6조52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13개월 연속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이다.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하며 무역적자 규모는 줄었다. 지난 1월 무역적자가 126억 5000만 달러, 2월에 52억7000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적자 폭은 축소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이러한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심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중국·일본 등 제조기반 수출강국뿐만 아

니라 대만·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으며, 일본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 역시 반도체 업황이 어려워지며 지난해 1월 수출이 20.6% 급감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수출 부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를 구축한다. 수출지원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월에도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IT부문 업황 악화에 따른 영향이 컸다"며 "최근의 한일 협력 분위기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한일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유망 품목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개학·개강으로 학원·대학가 편의점 매출 ↑

'가성비' 삼각김밥 158%, 파우치음료 147% 늘어

개학·개강으로 학원가와 대학가가 활기를 보이면서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 점포 매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학교·학원 근처 점포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먹가·오피스가 등 다른 상권의 증가율이 10~20%대 인 것을 감안하면, 학교·학원가 점포가 개강·개학으로 인해 '개학 특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학교 상권 점포의 상품군별 매출을 보면 파우치음료(147%), 단백질음료(146%), 과일·채소(122%), 샌드위치(130%), 냉장주스(120%), 얼음컵(114%)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면 수업이 시작돼 아침대용식, 야외에서 즐

기기 좋은 시원한 음료 등을 많이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교 상권 점포에서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삼각김밥'이었다.

삼각김밥은 전년대비 1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3월이 개학과 개강 시즌으로 삼각김밥이 높은 매출을 보이는 데다 사이즈 업 행사까지 더해져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물가 인상으로 인해 용량을 늘린 먹거리를 찾는 고객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삼각김밥(100~110g)보다 중량을 약 50% 늘린 더빅삼각김밥(최대 160g)이면, 밥한 공기(200g)와 비슷한 양을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환기자

5월 황금연휴에 미주·유럽여행 예약률 ↑

일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해외 여행 수요가 유럽·미주 등 장거리 여행지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5월 연휴 및 9월 추석을 이용한 황금연휴를 활용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교원투어 여행사의 5월 황금연휴 기간 전체 모객 중 장거리 여행상품 비중은 전년대비 17%포인트 증가한 5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주·캐나다 여행 수요가 두드러졌다. 5월 출발 기준 미주·캐나다 상품 모객 인원은 전월 대비 124% 증가했다. 유럽 상품 모객 인원은 전월 대비 7% 늘었다.

이처럼 5월 장거리 상품 모객 비중이 높아진 것은 황금연휴가 예정돼 있는 데다,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행사 관계자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는 고객들의 예약과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

다.

노랑풍선도 1~2월 온라인 웹로그와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6월 장거리 여행 예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예약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유럽(25.5%)이라고 밝혔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가정의 달로 불리우는 5월이 다가오면서 가족 혹은 연인들과 여행 계획을 갖고 계신 고객들의 예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럽과 같이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여행지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석 기간을 활용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도 늘고 있다. 하나투어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1일~30일 출발 기준) 기획 여행상품 예약 현황(항공권, 호텔 등 제외)을 분석한 결과, 유럽이 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럽 내 선호 지역으로는 서유럽(43%), 스페인(21%), 동유럽(18%) 순으로 집계됐다.

오유나기자

삼성전자, 4월 '2023 삼성 TV 슈퍼빅세일...최대 100만원 혜택

삼성전자가 17년 연속 TV 세계 판매 1위를 기리며 이달 한 달간 '2023 삼성 TV 슈퍼빅세일'을 진행한다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023년형 Neo QLED TV 신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SC90 시리즈 OLED 제품 사진 판매도 함께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Neo QLED 신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7만원 상당의 혜택과 삼성 TV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풍부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 사운드바를 증정한다.

행사 초기인 10일까지는 최대 34만원 상당의 더블 혜택을, 2023년형 Neo QLED 8K 85형 제품 구매 시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모델에 따라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The Freestyle)' 혹은 게이밍 모니터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23년형 Neo QLED TV 등 신제품 대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Neo QLED 65형 스탠드 타입 구매 고객에게는 TV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액세서리 신제품 '더 트레이(The Tray)'를 제공한다.

2023 삼성 TV 슈퍼빅세일 기간에는 사진 판매 특별가로 구매 가능하다. 구매 고객에게는

사운드바와 헤드셋, 티빙 프리미엄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황태환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17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달성에 보내주시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선옥기자

한전·가스공, 요금인상 불발에 "급격한 사채발행 불가피"

"대금 적기 지급에 차질...채권시장 부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미뤄진 것과 관련 "급격한 사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력 구매대금과 전기 공사대금 적기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한전·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향을 협의한 결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인상안 발표를 미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적자 상태가 역대급인 에너지 공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승일 한전 사장은 "원가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달 4회, 평균 9일 간격으로 발전사에게 지급하는 전력구입 대금을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기요금 조정이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한전체 발행 규모를 더욱 늘

릴 수밖에 없고, 한전 경영실적 악화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한전채 쏠림현상' 등 채권시장 교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전은 전년 대비 456.7%(26조 7669억원) 줄어든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5조원 이상 적자가 추가 발생하면 내년 한전은 법정 사채발행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채발행에 차질을 빚게 되면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 곤란 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사장은 "한전의 재무 위기가 발전사와 공사업체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매년 6조~7조원 수준으로 이뤄지는 송배전망 투자도 위축되면서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게 되는 발전소 출력제어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전력계통 안정성도 취약해져 국민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스공사도 적시에 인상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걱정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원가회수율이 62.4%에 불과해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원 쌓여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가스요금 조정이 없다면 연말 미수금은 12조9000억원까지 누적될 것"이라며 "이 때 미수금의 연간 이자비용만도 4700억원으로 하루 13억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최 사장은 "지난해 요금을 38% 인상하며 국민들께 난방비 부담을 드렸지만, 덕분에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지난 2월 가스 소비량도 기온 영향을 제하면 전년 동월 대비 서울지역에서 잠정 6% 감소했다"고 인상한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제회복(리오프닝)에 따른 LNG(액화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유럽국가들과 비축용 LNG도입 경쟁, 주요 LNG생산프로젝트 투자 위축 등 글로벌 LNG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스공사의 재정여건 악화가 LNG 물량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지난 31일 당정이 발표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에너지 전문가 등과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긴급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재환기자